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開城)의 탄생

권영빈**

차례

1. 서론
2. 공간을 조직하는 힘들: 경계를 둘러싼 주/객(主/客)의 대치
3. 유산의 정체: 세대 밖의 존재들과 새로운 젠더레짐의 승계
4. 가족과 자본을 엮는 젠더분업과 개성의 탄생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개성의 로컬리티를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데 있다. 그간 『미망』은 역사·가족사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질로 인해 박완서 소설 연구의 차장에서 자주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품은 박완서가 집·가정에서 벌어지는 여성·가족 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던 근대성 비판이라는 테마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구한말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전환기적 시·공간을 전면화함으로써 그러한 주제의식을 더욱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 문학이나 역사에서 개성의 로컬리티는 근대 상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족자본’의 거점이라는 경제·정치사적 대항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은 『미망』에도 충실히 재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성의 로컬리티가 구축되는 기저에 젠더 이슈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망』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글로벌박사양성사업)

**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에서 가족사·연대기라는 형식적 특질이 갖는 의미는 세대 간 계승되는 가족/젠더질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유산(heritage)’의 이행 과정에 인물들의 스케일 교란과 경계넘기가 긴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전처만’은 전근대적 인물이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위치성’을 생존전략 삼아 그것을 내면화한 존재로서 근대성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감각하는 인물이다. 그는 서구적 친밀성과 근대적 섹슈얼리티의 세계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담지하고, 봉건 체제에 대한 균열의 상징성을 지닌 ‘돈케’를 후대인 ‘태임’에게 계승한다.

‘태임’이 ‘전처만’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케’는 그의 모(母)인 ‘머릿방 아씨’의 실절(失節)과 죽음, 그리고 그 씨앗인 ‘태남’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전처만’은 ‘태임’에게 돈케와 함께 그의 이부(異父) 동생 ‘태남’을 위탁한다. ‘돈케’의 상징성은 기존의 규범적 가족질서에 들어갈 수 없는 젠더적 시안을 의미한다. ‘태임’은 전환기적 시·공간에서 잠시 가시화되는 다양한 균열의 지점들이 착종된, 그러나 근대적 생존전략인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태임’은 기존 개성·개성상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존재들을 새롭게 자본화하는 한편, 혈연의 연대를 넘어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가문을 재편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족-자본’의 새로운 연결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젠더 협상과 분업으로, ‘태임’으로부터 다시 그려지는 개성의 로컬리티는 전환기적 시·공간의 체질에 맞게 그 자신을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젠더역학을 버팀목 삼게 된다.

결론적으로 『미망』의 개성은 가족 스케일의 질서가 변용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작동하는 공간이다. 본 연구는 『미망』을 통해 그간 개성이라는 장소 정체성을 논할 때 아직 문제시된 바 없는 가족/젠더질서의 의미를 기입함으로써, 오늘날 개성이 지닌 탈근대공간으로서의 다른 가능성을 환기하고자 했다.

1. 서론

박완서의 장편소설 『미망』¹⁾은 1985년 『문학사상』에 연재되기 시작해 1990년 완성·출판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장편 가족사소설의 계보에 드는 역작이다. 박완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문단에 등장했지만 그가 등단 직후부터 타계하기까지 보여준 왕성한 저술활동과 문학적 성과는 그를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작가라 이르는 데 이견이 없게 한다. 그의 많은 작품이 동시대 문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문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콘텍스트가 된다는 점에서 역시 박완서의 작가적 위상이 확인되는데, 『미망』 또한 19세기 말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근대화시기, 세계사적 시·공간의 재편 속에서 조선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공동체-문중(門中)의 재구성, 또 당대의 풍속 저변에 대한 문화사적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간 박완서의 소설적 성취는 주로 ‘가족’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명되어 왔다. 그것은 그의 작품세계가 전쟁 체험을 비롯해 이데올로기적 국가폭력에 말미암은 주체의 희생과 파멸을 가족 스케일이라는 생활 세계에 융해시켜 탁월하게 치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도시화 및 자본주의의 문제를 중산층 가족 모델을 토대로 꺾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박완서의 대부분의 작품이 ‘가족’이나 ‘여성’을 초점화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체험에서 말미암은 서사전략이나 경향성의 문제에 앞서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박완서 소설에서 가정 내 혹은 여성, 세대 간 나타나는 갈등과 거기 개입되는 당대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가족이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제로

1) 『미망』의 단행본은 1990년 문학사상사의 3권 구성으로 처음 제작되었고, 이후 1996년 세계사 기획<박완서문학전집>을 통해 2권 구성으로 출간되었다(전집 12, 13권). 2004년에는 세계사에서 기존 전집 『미망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꿈엔들 잊힐리야』 라는 제목의 3권 구성으로 출간했으며(전집 12, 13, 14권), 2012년에는 그간 출간된 장편소설을 집대성한 <박완서소설전집결정판>을 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결정판>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하 작품 인용은 권, 면수만 표기한다.

소급해 다뤄지며, 이때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간주되던 집·가정은 다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열리고 젖혀진다. 박완서 소설의 본령으로 논의되는 한국전쟁과, 개인주의·소비주의·물신주의 등으로 일컬어지는 파행적 근대성이 수렴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모두 ‘가족’이라는 지정학적 스케일에서 가장 응축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박완서에게 ‘가족’이란 사회구성체로서의 개인이 세계와 대면하는 장(site)이자 구체적인 시·공간이 적층된 장소로, 공적/사적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 사이를 오가는 주체 내부의 인식론적 겨루기를 보여주는 중심 무대인 것이다.

박완서가 가족 이야기를 통해 묘파하는 당대의 풍속과 다양한 인물군상은, 그러나 특유의 일상성과 쇄말적 묘사로 대변되는 여성적 필치로 인해 그의 집·가정을 역사나 공적담론이 사사화(私事化)되는 장소로 위치지우는 비평적 이데올로기와 손쉽게 만나왔다. 박완서 작품에 대한 주류적 평가의 시원(始原)은 1970·80년대 민족·민중문학 담론과 무관하지 않았으며²⁾, 이른바 “천의무봉의 묘사”³⁾라는 상찬 또한 박완서의 작품을 ‘대중성’의 지표 아래 한계 짓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박완서 소설에 전면화되는 여성의 욕망과, ‘뿌리내리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밖의식’과 ‘문안의 질서’ 사이의 이중성⁴⁾은, 박완서 소설에 대한 미학적·문학사적 자리매김과 담론화 과정에서 스펙터클의 일종으로 굴절되어, 대중성-소시민성이라는 탈젠더화된 인식소를 동반하게 된 것이다.

물론 1990년대 이래 페미니즘의 시각을 포함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박완서 소설에 접근하는 성과가 이어져왔고,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도 크게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⁵⁾, 이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2)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 14권 1호, 1979; 이광훈, 『소시민적 삶과 일상의 뒷』, 『현대문학』 302호, 1980.; 황광수, 『민중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 『창작과 비평』 15권 3호, 1985.

3)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문학사상』 17권 1호, 1988.

4) 권명아,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 찾기』, 『역사비평』 45권, 역사문제연구소, 1998.

5) 최근 새로운 주제의식과 방법론을 통해 박완서의 작품세계에 접근한 연구로 다음

라는 작가에게 장시간 부착된 ‘중산층 속물성 비판’이라는 비평의 레테르
는 연구자의 작품 선별에서부터 의미화에 이르는 데 일종의 관성을 조성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완서 연구에 있어 “논의의 획일화와 제한
적인 작품 고찰이 또다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복하게 된다”는 김윤정의
지적⁶⁾은 타당하다. 특히 중·단편에 집중되어 있는 그간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작가적 역능이 집결되는 장편소설에 대한 다채로운 의미화 작업
이 필요한 때이다.

『미망』은 삼(蔘) 재배와 유통을 토대로 축재한 개성(開城) 유지인 ‘전
처만’과 그의 직계비속을 중심으로 한 사대(四代)에 걸친 가족 연대기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한국전쟁 종료 시점인 1953년에 이
르는 60여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 말 봉건 구습의 몰락, 서구 열
강의 경합 및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근대화와 자본주의 질서 체제에
동반되는 다양한 장면들과 함께, 소설은 그러한 역사적 격동기에 대응하
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미망』은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하
는 가족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박완서의 다른 작품들과 병렬되
지만 이를 단독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미소한 실정이다.⁷⁾ 특히 2000
년대 들어 박완서 작품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간 것에 견
주면, 『미망』의 경우 작품 발표 직후의 비평이나 단행본 후면에 첨부되는
해설을 통해 시도된 의미화로부터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크게 나아갔
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허정인 또한 『미망』이 ‘저주받은 걸작’으로 일컬

을 들 수 있다. 권명아,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 구상』, 『여성문학연구』 40권, 한국어여성문학학회, 2017; 정미선,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제1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신수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 『한국문예비평연구』 51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6)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역락, 2013, 32-33쪽.

7) 박민숙(1997), 최수정(2001), 박연경(2003), 우경미(2005), 지수희(2006), 박해리(2007), 허정인(2009), 남미옥(2010)의 석사학위논문과 허정인(2013)의 학술지논문.

어지며, 그간 박완서 소설 연구의 자장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⁸⁾ 이러한 요인은 『미망』이 표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역사·가족사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징 때문인데, 이러한 접근은 곧 『미망』을 박완서의 작품세계에서 돌출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하며, 실제 연구들도 그러한 이질성을 일정부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⁹⁾

그러나 실로 『미망』은, 사적이고 주관적이며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으로 간주되는 집·가정이, 그 자체로 근대성의 단면이자 그것을 넘어서려는 이데올로기적 기획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지속적으로 천착한 박완서의 작품세계 안에서 크게 이례적이지 않다. 그의 소설에서 가족의 세계를 에워싼 공적/사적 질서의 삼투와 뒤섞임은 집·가정 공간을 다양한 스케일이 적층된 구조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그 안에 개입되는 젠더질서는 집·가정을 둘러싼 경계가 유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재편되고 협상되는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하는 인자(因子)이다. 요컨대 박완서의 소설에서 가족의 세계가 제출하는 의미는 ‘공간’ 그 자체의 중요성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획하는 ‘경계’에 있으며, 그러한 경계를 변용하고 재구축하는 동력으로써 필연적으로 젠더역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을 토대로 박완서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규명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려는 기획으로서 『미망』을 재독하고자 한다. 『미망』에 나타난 가족의 세계와 젠더역학 또한 박완서의 여타의 소설과 단절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전환기적 시·공간을 전면화함으로써 그러한 주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격변의 시기에 세계체제와 길항하는 물리적 장소로 제시되는 소설

8)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재고의 한 형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318쪽.

9) 이동하, 「근대화의 문체와 소설적 진실-박완서의 《未忘》」, 『작가세계』, 1991.3; 오세은, 「여성 가족사 소설의 형성과 의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 전이정, 「안수길의 『북간도』와 박완서의 『미망』에 등장하는 三代 인물들의 비교 고찰: ‘경계’에 위치한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들의 현실 대응」, 『전농어문연구』 제19집,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속 ‘개성’은 경제 영역에서 가장 잘 포착되는 근대성에 대한 화두가 ‘가족’의 생활세계에 수렴되어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미망』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근대성 재고’에 있다는 점¹⁰⁾ 또한, 이 작품에 나타난 가족의 세계와 젠더역학이 하나의 공적 질서로서 (탈)근대공간 주조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집·가정과 가족의 세계란 언제나 ‘관계적’으로 구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문학·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젠더지리학¹¹⁾의 접근법은 『미망』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어들을 제공해준다. 공간을 구축하는 경계와 그 역동성에 주목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도린 매시는, 공간이 시간이 부재하거나 결핍된, 역사의 대립항으로 이해되어온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그것이 ‘공간-시간’의 맥락에서 모든 스케일에서의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은 ‘집’과 같은 특정한 장소 또한 그러한 관

10) 허정인, 앞의 글.

11) 이른바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1970년대 비판지리학과와 친연성 속에서 등장해 공간과 젠더의 관계에 착목한 학문적·경험적 이론과 탐색의 분야를 의미한다. 여성의 비가시화, 배제와 억압이 어떻게 공간 속에서, 공간을 통해, 공간에 의해 구성되고 강화되며 재구축되고 변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초기에 남/녀의 물질적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던 것에서 점차 여성 내부에 가해지는 다양한 억압의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서구 페미니즘 운동사와 결을 같이 했다. 최근 연구의 흐름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부장제 생산 양식의 확대와 그 속에서의 여성 억압과 착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학술장에서 역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방법론을 통해 초국적 이주민·디아스포라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양상을 분석하고 쟁점화하고 있다.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저,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7. 474-496쪽 참조)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특히 공적/사적 공간 혹은 집/지역/국가 등으로 구획된 물리적 스케일을 뛰어넘고 교섭하고 탈주하고 교란하는 (여성) 주체의 행위자성(agency)을 포착하고 복원한다는 점에서, 젠더질서의 변용이 갖고 오는 새로운 공간 구획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상통한다. 한편 본 연구가 ‘여성주의 지리학’ 혹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이라는 용어 대신 ‘젠더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완서 소설에서 가족의 세계와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가 관계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점을 주시하여, 성별이분법을 암시하지 않으면서 상황적·관계적 맥락과 용법을 지닌 용어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다.

계들의 특수한 결절지로, 사회적 관계와 이해들이 이루는 네트워크상의 '특정한'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때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를 둘러싼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바깥의 것과 대립되어 구성되는 '특수성'이 아니다. "정확히 그 경계 '너머'와의 연계와 상호연관성의 조합의 특수성을 통해, 장소의 특수성이 (일부) 구성"된다.¹²⁾

본 연구는 공간을 역사와 사회적 관계의 적층구조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젠더지리학의 시선을 통해, 『미망』에서 가족의 세계와 젠더역학이 소설의 중심무대인 '개성'이라는 공간을 건축하는 과정적 장면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개성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환기적 시·공간이라는 이중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가족/젠더질서의 변용과 그것을 둘러싼 인물들의 응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대(四代)에 걸친 연대기라는 시간축을 따라 '전처만'과 '태임' 등 소설 속 중심인물들 간에 계승되고 위탁되며 활용되는 가족/젠더질서의 의미를 묻는 작업이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 문학이나 역사에서 개성이 갖고 있는 표상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박완서의 『미망』을 통해, 그간 개성이라는 장소 정체성을 논할 때 아직 문제시된 바 없는 가족/젠더질서의 의미를 기입함으로써 오늘날 개성이 시사하는 탈근대공간으로서의 다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2. 공간을 조직하는 힘들: 경계를 둘러싼 주/객(主/客)의 대치

『미망』은 일차적으로 '전태임'이라는 여성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데 초점을 두고 전개된다. 태임이 나고 자란 '동해랑' 집의 내력과 가내 질서는 태임이라는 인물의 내적·외적 성향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 '머릿방 아씨'의 무위(無爲)의 생활 속에서,

12) 도린 배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42-46쪽.

태임의 집안 내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의 삶을 정향해주는 인물로서 ‘전처 만’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전처만은 동해랑의 주인이자 일찍이 삼 재배와 유통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개성의 유지로, 그가 가진 자본 축적의 재능은 시대와 물자의 흐름을 읽는 혜안뿐만 아니라 상업적 실패를 위한 신중함과 과단성을 동시에 지닌 것이다.

전처만이 가진 수완은 ‘개성’이라는 특수한 로컬리티¹³⁾를 기반으로 빛어진 것이다. 『미망』의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되는 개성은 소설 속 표현대로 역사의 부침에 따라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하는 그런 곳이다.

시대에 따라 개성이란 지역도 넓어졌다 좁아졌다하고 호칭도 도, 군 혹은 부나 현으로 변천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

13) 지역, 혹은 로컬(local)이란 ‘경계로 구분된 토지(area)’를 의미하며,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국가와 비교하여 좀 더 좁은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 ㉡ 국경을 넘어 여러 국가에 걸친 광역을 가리키는 경우, ㉢ EU처럼 여러 국가들을 포함한 초광역을 가리키는 경우.(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역,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소로컬리티번역총서 4, 심산출판사, 2011, 20-21쪽 참조) 이러한 로컬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일컫는 ‘로컬리티(locality)’는 학술 담론장에서 좀 더 복잡한 맥락에서 쓰인다. 로컬이 근대 국가주의 기획으로 구획·재편되고 식민화되는 양상과 위계적 정체성을 할당받아온 역사를 비판하고 로컬을 이루는 다층적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일종의 근대 비판과 극복의 형식으로 로컬리티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컬리티 연구는 이처럼 포스트·탈(脫)·후기·해체론(들)과 접촉하는 한편 공간이론과 지리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간 보편의 역사에서 생활세계에 이르는 폭넓은 인식체계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문재원은 로컬리티 연구의 패러다임과 관련해, 로컬리티란 ‘삶의 터로서의 로컬(공간)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시간)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이며, 이는 매우 유동적이고 중층적이며, 권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것’이라고 논했다. 또한 로컬리티는 “근대성의 이분법적 구조 안에서 배제되었거나 묻혀버렸던 다양한 가치들이 로컬에 내재해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선험적 규정이 자칫 또 다른 중심주의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로컬리티가 이미 고정되었거나 확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생성적이라는 점에서, 특정 로컬리티가 형성·변화되어가는 역동성과 관계성을 읽어내는 구성적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이다.(문재원,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로컬리티 인문학』 제15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6, 308쪽)

을 개성 사람으로 자처하는 데 긍지를 느꼈고 개성 사람다운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또 그들의 독특한 문화의 중심지인 송악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서울이었던 성곽 안을 따로 송도라 불렀고, 이씨 왕조의 서울인 한양과는 상관없이 송도야말로 개성 사람들 마음의 서울이었다. (...) 송도 근교의 개성 사람들에게 송도는 마음의 서울일 뿐 아니라 언제나 한번 큰 꿈을 펴볼 수 있는 꿈의 대처였고, 넓으나 넓은 미지의 세상으로 열린 문호였다. (...) 개성 사람들이 한양 길을 굳이 내려간다고 할 만큼 서울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은 건 그들이 유독 정치적인 꿈, 즉 벼슬하고픈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1, 233-234)

개성의 로컬리티는 곧 개성 사람들의 문화적 동질성이 축적된 결과이다. 고려의 서울이었던 송도(松都)를 중심으로 구축된 개성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문에 밝고 실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만큼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소설에 그려진다. 여기에는 우선 고려왕조의 몰락 뒤에 들어선 조선조 지배체제에 대한 대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개성 사람들은 이성계에 의해 목숨을 잃은 최영 장군을 숭상함으로써, 조선조에 불사하는 대신 “특이한 상흔을 이룩한 그들의 당찬 기질의 뼈대”(1, 334), 곧 ‘송상(松商)’으로서의 자부심을 얻는다. 조선조 이래로 벼슬길이 막힌 개성 사람들에게¹⁴⁾ 상업은 왕조질서 못지않은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이며, 특히 성리학을 세속화하고 사농공상의 위계를 고착한 조선조에 대항하는 특유의

14) 영조 대(1724-1776)의 실학자 이증환이 지은 『택리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태조가 백년에 한하여 개성선비들의 과거 보는 것을 금하도록 명하였다. 머물러 사는 자들은 아들과 손자 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평민이 되어 장사로서 생애를 삼고 선비로서 학업을 닦지 않았다. 삼백년래에 드디어 개성에는 사대부들의 이름까지 없어졌고, 경성의 사대부들도 또한 가서 사는 이가 없었다.”[李重煥, 『擇里志』 開城條 (김창원, 『근대 開城의 지리적 배치와 開城商人의 탄생』, 『국제어문』 64권, 국제어문학회, 2015.3, 45쪽에서 재인용)] 한편 김창원은 이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택리지』를 포함한 많은 문헌들이 조선조 한강을 중심으로 구축된 위계적 지역 구조가 개성을 양반문화의 소외지 혹은 변두리로 위치시키는 차별의식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논한다.

망탈리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개성의 로컬리티는 송상의 전형(典型)인 전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전처만은 조선조를 “덕 없이 세운 나라, 골육상잔의 피로 세운 나라”(1, 19)로 폄훼하면서 거기를 오가는 양반·향반 무리를 일관되게 비판하지만, 그러한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양반노릇’에 또한 적지 않은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 이는 전처만이 어릴 적 겪은 끔찍한 경험과 관련된다. 봉건양반이 갖고 있는 생사여탈의 권한이 육친에게 미치는 순간을 목격한 그로서는 기존 지배체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시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처만은, 왕조의 흥망에 따라 었치락뒤치락하는 경직된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상업인의 감각을 토대로 문증을 일궈으며, 생존의 기술이자 자본 그 자체인 가문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가장 민감하다. 두 아들인 ‘부성’과 ‘이성’에게 삼에 관한 각각의 성향과 재능에 맞는 소임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직무를 전승한 것 또한, 가문의 몸을 불리는 것보다 그 유지와 안정을 우선하는 전처만의 신중함과 과단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조라는 외부와의 대결의식을 토대로 내부적 생존기술을 터득하여 다시 외부와 교섭하며 살아가는 송상은 개성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구축하고 담지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송상이자 개성의 유지인 전처만 또한 시국을 진단하고 거기 대응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 소설 초입부터 제시된다.¹⁵⁾ 그는 19세기 말의 정세가 단순한 왕조 교체의 조짐이 아닌, 그보다 더 거대한 전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찍이 감지하는데, 이러한 전환 혹은 이행에 대한 ‘경계’의 감각은 그가 남달리 “나라 밖에서 제 나라를 바라본 경험이 풍부”(1, 19)하다는 데에서

15) 전처만의 차인(差人)인 ‘최서방’은 당해에 큰 이문을 남길 목면(木棉)을 매점매석할 것을 제안했다가 전처만의 ‘세월이 하 수상하다’는 ‘느낌’만으로 거절당하고 풀이 죽는다. 이 대목에서 최서방은 그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며 크게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목면을 쟁여놓은 다른 송방(松房)이 민란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최서방은 전처만의 선견지명에 다 시금 놀라워하게 된다.(1, 116)

온 것이다.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에 접근할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간의 극복과 교섭의 문제가 대두된다. 경계를 넘는 것은 새로운 위상학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위치시키는 작업이며, 이러한 존재들은 자신의 위치성을 생존전략 삼아 그것을 내면화한다.¹⁶⁾ 지배체제의 흥망에 포섭되지 않는 생존기술을 익히고 다시금 그러한 지배 질서와 교섭하며 살아가는 송상 또한 조선조라는 물리적·관념적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을 재구성해왔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에게는 그렇게 육화된 경계에 대한 감각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정체성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송상이라는 집합적 주체에 축적된 ‘경계넘기’의 경험은 곧 ‘존재론적 사이’ 공간¹⁷⁾으로서의 개성의 로컬리티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송상 개개인에게 있어 개성은 또한 자신의 근원공간으로, “최초의 세계”이자 “인간의 사상과 추억과 꿈을 한데 통합하는 가장 큰 힘”¹⁸⁾이 깃든 곳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
- 16) 정현주,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5, 290-291쪽.
- 17) 이재성은 근대에 의한 현대 체제 일반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탈근대 담론 안에서 ‘로컬’ 혹은 ‘로컬리티’란 필연적으로 존재론적 ‘사이’의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논한다. 근대의 출발점이 데카르트적 선형적 주체라면, 그러한 주체는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초월하여 그것을 일반화·보편화한다. 서구 근대는 그러한 시·공간을 전제하고 이해하며 정복함으로써 도달된 것으로, ‘탈근대’란 근대의 보편타당성에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담론적 흐름에서 ‘로컬’ 혹은 ‘로컬리티’는 고착된 ‘경계선’ 내지 ‘사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존재론적 ‘사이’로서의 로컬(리티)이 가능한 것은 글로벌화가 로컬의 콘텍스트가 되고, 로컬이 글로벌의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다.(이재성, 『근대와 탈근대 담론에서 존재론적 ‘사이’로서의 로컬리티』, 『哲學研究』 제126집, 대한철학회, 2013.5 참조) 『미망』에서 개성은 20세기 전후의 역사적 전환기에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개항과 근대화에 대한 대응으로 ‘민족’에 앞서 로컬 단위의 실험과 실천을 보여준다. 개성의 로컬리티는 집/지역/국가(민족) 등으로 구획된 위계적 스케일에 속박되지 않고 그 자체의 유연한 자생적 동력에 따라 조직됨으로써, 일종의 (탈)근대성을 담지하는 ‘사이’ 공간으로 제시된다.
- 18) 가스통 바슐라르, 박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77-81쪽.

송상 중에서도 이름난 거부인 전처만 역시 개성을 자기 삶의 근원적 토대로 감각한다. 그는 동해랑 집을 중심으로, 삼이 유통·거래되는 장소인 ‘청포전’과, 개성에서 삼밭[蔘圃]이 가장 널리 분포돼 있는 ‘셋골’, 그리고 셋골에서 10리를 더 들어가는 변두리이자 그의 후실인 ‘해주댁’과 그 소생 ‘후성’이 기거하는 ‘강릉골’을 자신의 만년의 무대로 삼고 있다. 전처만이 그리는 개성의 지리(地理)는 그가 어릴 적부터 오르내린 ‘용수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조망된다. 그는 소싯적 용수산에 올라 “셋골 땅을 다 살 만큼 돈을 벌기 전엔 절대로 용수산을 넘지 않으리라”(1, 77) 맹세했으며, 그것을 이룬 뒤에도 자주 용수산을 오르내리며 자기 삶의 반경이 집약된 개성땅을 굽어본다.

용수산이라는 전망대는 전처만이 스스로를 공간의 ‘주인’이자 그 경계를 구축하는 ‘주체’라는 점을 의심치 않게 하는 요지(要地)라 할 수 있다.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인 동해랑 집과 강릉골, 그리고 자본의 거점인 청포전과 셋골은 용수산이라는 노드(node)를 통해 접속되고 연결되며, 그것을 조직한 ‘송상’의 정체성 또한 그러한 주인의식과 맞붙어 있다. 전처만이 태임을 대동해 용수산에 오르는 것을 유난히 기꺼워하는 것 또한 그가 편애하는 태임에게 계승해주고자 하는 개성땅과 그것을 조직하는 힘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용수산에서 전처만이 겪는 감정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공간적 재편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만년의 전처만이 태임을 동행해 용수산을 오르며 느낀 뜻 모를 울적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아, 전처만은 지난날 북경 거리에서 본 양인 남녀처럼 거리낌 없는 애정 표현을 손녀와 나누고 싶다는 갈망을 억제하느라 무겁게 신음했다.(1, 73)

오랜 시간 축적해온 ‘경계인’으로서의 감각은 세상의 변화를 예민하게 읽고 거기 대응하게 하는 만큼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분열과 당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전처만은 아내인 ‘홍씨부인’에게조차 가내 질서의 권위를

온전히 위임하지 않고 집안의 기둥이자 개성땅의 거목으로서 모두를 호령하지만 유독 손녀 태임에게만은 안절부절못한다. 태임은 전처만이 잃은 장남이 남긴 하나뿐인 핏줄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편애의 대상이 되지만 그가 태임을 대하는 태도는 좀 더 중요한 대목과 겹쳐져 있어 주목을 요한다. 전처만이 말하는 ‘지난 날 북경 거리에서 본 양인 남녀’란, 소설 속 다른 인물들이 ‘양인’을 기억하고 표상하는 방식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¹⁹⁾

그도 양인을 본 적이 있었다. (...) 말이 끄는 바퀴 달린 가마 같은 데서 바지 입은 남자 양인이 먼저 내리더니 그 안의 여자를 부축해 내려주는가 했더니 꼭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 동행은 제풀에 별경에 달아오른 얼굴로 이렇게 호령을 하고 도망을 쳤지만 전처만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꿈쩍을 못 하고 지켜보았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하고 눈부서 보였는지, 전처만은 지금까지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기쁨으로 아침햇살 속에 갇혀 피어난 커다란 꽃송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 어찌면 부부가 아니라 부녀간인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흘레까지는 안갔더라도 부녀간에 볼을 부비고 입술을 서로 댄다는 것도 해괴망측한 일이긴 하지만 더욱 해괴한 것은 전처만 자신의 눈이었다. 그는 그들의 모습이 보기 싫지가 않았다. 보기 싫기는커녕 생전 처음 맛보는 설레는 황홀감을 경험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1, 21-22)

19세기 서구에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상으로 대치되는 남녀의 혼인 관계는 섹슈얼리티-재생산을 분리시키는 근대 핵가족 모델의 바탕이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섹슈얼리티가 공공연한 비밀로, 단지 기술적(技術

19) 『미망』에서 여러 인물들이 양인의 목격담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들의 의술이나 카메라와 같은 신기술, 신문명에 놀라운 소견을 보이거나, 낯선 서구식 생활방식에 반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的) 검열의 일종으로 토론되었다면, 혼인이 광범위한 친족관계로부터 분리되고 개별 남녀의 ‘정서적 사업(emotional enterprise)’으로 인식되면서 부터는 섹슈얼리티가 가족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으로 대체된 것이다.²⁰⁾ 이러한 전환 속에서 남녀의 구애와 연애는 재생산과는 무관한, 개인화된 섹슈얼리티 위에서 이루어진다. 전처만이 양인 남녀의 거리낌 없는 애정표현을 보면서 ‘길바닥에서 흘레붙는다’며 질겁하는 대신 소년 시절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느낀 설렘으로 갑작스런 우수에 젖게 된 것도, 거기서 기존 질서에서 분리된 서구적 ‘로맨스’ 또는 다른 섹슈얼리티를 감각했기 때문이다.

전처만은 이처럼 우연히 양인남녀의 스킨십 장면을 보고는 “음탕함이 나 정욕의 김새 같은 게 없는”(1, 22) 특별한 설렘을 느끼고 충격을 받는다. 그가 최초로 목격한 근대적 친밀성의 세계는 조선이 외부를 향해 열리는 전환기에 그로 하여금 자신의 피붙이를 향한 새로운 욕망에 눈뜨게 한다. 손녀 태임을 ‘양인들처럼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자신의 가슴으로 그 건강한 고동소리를 확인하고 싶은’(1, 37) 생경한 감정은, 태임이 보통의 여자들이 갖는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하는 그의 바람과 함께 가내에 새로운 정동(情動)을 주입한다. 전처만의 바람이란 표면적으로는 전근대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태임의 재능과 주체성이 발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여성이 ‘양반님네들이 사는 법도’ 안에서 ‘신사임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전처만이 가진 젠더규범의 테두리를 가장 멀리까지 확장시킨 것으로, 그는 흥씨부인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태임에게 바느질이 아닌 글공부를 더 중히 여기게 하고, 태임의 계집애답지 않은 당돌함에 오히려 감동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미래를 읽는다.

전처만의 이러한 상상력은 곧 봉건구습과 근대화 사이에 놓인 역사적 전환기의 인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양가성으로 논의된다.²¹⁾ 경계의 구축

20)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9, 62-65쪽.

21) 허정인은 전처만이 자본주의의 발아와 함께 형성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내 질

자이자 담지자인 전처만의 측수에 예민하게 감지된 모종의 근대성이, 그 자체로는 태임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처만은 장자(長子) 중심의 봉건적 사고를 토대로, 태임 모(母)가 이성이나 부성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장손을 위시하는 가내 질서는 물론 태임의 위치와 권리를 시수해주는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당대의 젠더규범의 테두리와 조응하고자 한다. “새로운 삶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아녀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전처만은, 태임에게 그저 “그의 권위와 애정과 재력의 비호 하에서만”(1, 123) 가능한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에서 젠더의 범주는 종래의 가부장 질서나 혈연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태임이라는 ‘개인’의 측면에서 당대 여성이 갖고 있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상상 가능하게 만든다.

이 경우 이야기는 ‘전태임’이라는 뛰어난 여성의 일대기로 수렴되었을 것이나 『미망』의 서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전처만이 태임에게 투사한 서구적 친밀성의 세계,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라는 근대에 대한 감각은 태임을 위한 것인 동시에 그 자신의 욕망을 되비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전처만이 태임을 위해 마련해주고자 하는 자리를 초과하는 다른 힘을 일깨우는 데 소용된다. 전처만이 대면한 ‘뜻 모를 감정’의 기저에, 근대적 섹슈얼리티의 세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머릿방아씨’가 놓여 있다는 점이 포착된 것이다.

동해랑 집을 유지하는 가내 질서의 ‘현신’으로 유폐된 채 살아가는 아씨는 시부모인 전처만이나 홍씨부인은 물론 친딸인 태임에게조차도 냉담한 채 연명하는 존재이다.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 아씨는 생명과

서와 같은 자본 외적 관계에서는 봉건적 규범체제를 수구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양가성은 격동의 시대 변화를 담지하는 주체로서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논한다.(허정인, 앞의 글, 321-322쪽) 한편 홍기돈은 근대의 편에서 서서 식민지 조선의 봉건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서구의 생활방식을 못 견뎌하는 ‘중상’의 양가성 또한, 식민지 지식인이 지녔던 혼종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사하게 지적하고 있다.(홍기돈, 『미망, 2010년대에 부각되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의미』, 『미망』 작품해설, 세계사, 2012, 432-437쪽)

일상성이 느껴지는 존재라기보다 “만지면 차가울 것 같다는 일종의 질감”(1, 26)으로 파악되는 인물이다. 전처만 내외가 이런 아씨를 상전으로 받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앞둔 아들로부터 장손을 보기 위해 돈으로 사오다시피 한 며느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해진 과부자리에 단지 재생산을 위해 매매되어 온 아씨는 태임이라는 혈육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가시화된 채로 살아간다. 죽은 남편을 통해서만 유효했던, 가문을 유지하는 ‘자본’인 아씨는 결코 모성(母性)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아씨의 실절(失節)과 죽음은 전처만이 오랜 시간 구축한 송상의 정체성과 가문의 질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공간의 주인이자 경계를 구축하는 주체인 전처만은 그 내부에 항상적으로 지니고 있던 ‘아씨’의 존재와 그 가시화로 인해 태임에게 계승해주고자 했던 것들-개성땅과 그것을 조직하는 힘-에 모순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써 전처만이 태임에게 부여해주고자 했던 이례적인 젠더 질서는 태임이라는 개인의 삶을 정향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태임과 ‘종상’의 결합은 물론 새로운 젠더질서를 바탕으로 한 가족·가문의 재편과, 소설의 주 무대인 ‘개성’이라는 공간적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게 하는 동력으로 나아간다. 이제 『미망』의 서사는 공간의 주인임을 자처했던 전처만 대신, 공간을 차지하지도, 공간에서 드러나지도 않았던 아씨가 그것을 조직하는 힘의 심급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안으로부터 열리고 변화하는 개성과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적 장면들은 결국 『미망』의 중심인물인 태임이 무엇을 ‘계승’하였는지를 묻게 만든다.

3. 유산의 정체: 세대 밖의 존재들과 새로운 젠더레짐의 승계

『미망』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처만으로부터 시작해 태임과 그 자손으로 연결되는 순행적 구성은 연대기 형식을 내세우는 여타

의 소설 장르에 상응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전처만이 일군 가문의 상징인 동해랑 집의 내력으로부터 출발해, 그 의미가 변환되고 대체되는 장면들이 식민지·근대화라는 전환기에 놓인 개성의 변화와 더불어 제시된다. 『미망』의 서사는 이처럼 역사·가족사·연대기 형식의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에 견주어도 많은 부분 해명되지만²²⁾, 그것이 『미망』에 나타나는 젠더화된 사안을 변별해내지는 못한다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요컨대 『미망』이 취하고 있는 ‘가족사’라는 열개의 핵심은 세대 간 계승되고 위탁되며 활용되는 가족/젠더질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22) 장르로서의 ‘가족사·연대기’ 소설은 1930년대 후반 카프 해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일제 탄압의 심화 속에서 ‘대상의 총체성’을 드러내는 장편소설의 위기가 지속되자 그 활로 개척의 일환으로 김남천, 최재서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토마스 만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준거로 하여 가족사·연대기 소설을 리얼리즘 구현을 위한 장편개조론의 도구로 제창했다.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이 아닌 가족적 삶이 중시된다. 2) 세대의 병치나 교체를 통해 한 가족의 몰락이나 하강의 순환을 되풀이한다. 3) 전체 플롯은 세대담의 형식이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서사적 일탈을 포함하기 위한 에피소드적 구성을 취한다. 4) 가족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시대와 사회에 대한 현실의식, 즉 역사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한다.(류종렬, 『1930년대 말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과 특성』, 『韓國文學論叢』 제11집, 한국문학회, 1990 참조) 한편 ‘역사소설’은 “지나간 역사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가능세계를 지향하는 소설”이자, 현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탐구하는 장르이다. 또한 역사소설은 작품이 다루고자 하는 시기 전체에 대한 풍속을 재현하고 복원하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복원과 작가의 이념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전사로서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역사가 나아갈 추동력을 확보하게 된다.”(문홍술, 『남한 역사소설 연구』, 『인문논총』 29,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46쪽) 오세은은 이러한 기존 역사·가족사·연대기 소설의 장르적 특질이 남성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 및 남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도를 주로 해명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가족사 소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오세은, 앞의 글) 이 글의 문제의식인, 집·가정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여성친화적 특질이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보다 더 주도적 주체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족’과 관련된 장르 명명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 가족사 소설의 특질과 그 사례로 들고 있는 『미망』은 몇몇 핵심적인 대목에서 상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장르적 보편성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점이야말로 여성 작가들의, 여성 가족사 소설의 특질이기도 할 것이다.

있다. 특히 반세기가 넘는 시간적 배경에서, 내용상 초대(初代)에 해당하는 전처만의 행보와 그것이 집약된 동해랑 집에서 벌어지는 오년여의 시간에 전체 소설의 삼분의 일에 가까운 분량이 할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망』은 표면적으로 태임이라는 여성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데 초점을 두고 전개되지만, 실상 태임의 삶은 선대(先代) 전처만이 남긴 인적·물적 자본을 처리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데 철저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임을 경유하여 계승되고 변용되는 헤리티지의 정체는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점으로 말미암아 『미망』은 주인공의 성장과 활약에 방점을 두는 ‘시간’의 서사가 아닌, 그를 포함한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기 위해 다투는 ‘공간’의 서사로 논하는 것이 타당해진다.

청국과의 밀무역을 통해 축재한 전처만은 나라 안팎을 오가며 펼친 자신의 광활한 삶의 반경을 만년의 개성땅에 집약시킨다. 송상으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누적된 경계넘기의 경험들은 용수산이라는 전망대에서 청포전, 셋골과 같은 자본의 거점을 거쳐 동해랑 집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동해랑 집의 가장 깊숙한 곳간에 놓인 ‘돈궤’는, 그러한 전처만의 삶이 가장 고밀도로 응축되어 있는 내밀한 장소이다. “영감의 마누라도 모르는”(1, 16) 돈궤와 그것이 놓인 동해랑 집은 사적 공간이면서도 개성이라는 더 큰 층위의 스케일과 접속되어 있다.²³⁾ 개성의 ‘상혼’을 누구보다 월

23) 스케일(scale)은 사회적 과정이 형성·매개되는 공간적 규모로 수직적 위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령 거시 스케일은 글로벌·국가와 같이 권력관계에서 상위의 권한을 가진 단위를, 미시 스케일은 지역사회·몸과 같은 하위 단위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는 스케일 간 고정된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스케일은 상대적인 것으로, 국가, 자본, 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주체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2011, 267쪽) 페미니스트 공간 연구의 지향점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스케일 층위들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와 ‘힘’에 관한 것이지, 서로 상대화되는 스케일의 대립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서로를 포함하고 배제하는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스케일’이라는 메타포가 겨냥하는 속성들, 이를테면 몸/가정/근린/도시/국가/글로벌 층위는 기존의 위계와 이분법적 인식틀을 반복하는 차원에서 분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특정 스케일이 갖는 선형성과 수직적 위계

등히 육화한 전처만이 그 결과가 가장 구체적으로 집약된 돈케를 신비화함으로써 송상으로서의 정체성과 경험을 가내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전처만이 태임에게 물려준 것은 이 돈케에 담긴 막대한 은자(銀子)이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돈케’가 갖고 있는 공간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비워지고 채워지며 변화하는 다공성(多孔性)의 공간이자, 그러한 변화의 전 과정이 깃들여 있는 저장성의 공간이다. ‘돈케’라는 표상을 통해 전처만이 후대에 계승하고자 했던 내용물의 정체를 간취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인물들이 겪은 특수한 경험들을 경유해야 할 것이다.

탈장소(dis-placed)란 개인과 집단 정체성 간의 관계와, 영토 또는 장소의 특질들을 급진적으로 바뀌는 이동이나 여행을 뜻한다. 탈장소의 경험은 다른 시간 및 장소들과 연결됨으로써 이동의 주체에게 정체성의 변화와 공간에서의 젠더 구분의 재협상을 불러온다.²⁴⁾ 이 개념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집단이주를 포함해 인간과 자본이 점차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되고 연결되는 현대의 디아스포라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것이 정체성의 장소에서 이탈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일상성을 토대로 해명된다는 점에서 고정된 층위를 갖지 않는다. 특히 전통적인 공간 구분의 기체인 공/사(public/private) 이분법을 와해시키고 특정 장소에 붙박인 기존의 젠더질서를 초과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현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탈장소의 경험은 개인을 둘러싼 세계가 재구성되는 긴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태임 모인 머릿방 아씨는 전처만이 병약한 장자로부터 서둘러 핏줄을

성을 부정하고 상이한 스케일 간의 경합과 상호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스케일’ 논의의 의의가 확보될 수 있다.(황진태·정현주,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여성운동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2015.2 참조)

24)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0, 22-23쪽.

보기 위해 가문에 들어온 제물이다. 아씨는 ‘부족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성욕을 지녔던 남편에게 혐오감을 지녀왔으며, 그가 요절한 후에는 태임에게는 물론 집안 내 모든 인물들에 냉담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요컨대 애초에 공공연한 희생양이었던 아씨 자신으로서는 동해랑을 떠받치는 가내 질서와 그 종자인 태임조차도 혐오스러운 ‘부족증’의 증상으로 계속해서 겪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해랑 집은 아씨에게 봉건 가부장제가 현시하는 억압공간의 의미를 초과하는 것이다. 흥씨부인이 떠느리인 아씨를 대할 때 떠올리는 ‘허수아비’라는 심벌에서 알 수 있듯이, 아씨는 그 속에서 철저히 비가시화된,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아씨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지은 계기는 친정집의 제사가 아니라면 없었을 셋골 방문이 조카딸 혼인을 기해 이례적으로 가능하게 된 데 있었다. 평소라면 친정집 계집종이 마중했을 것을 혼인잔치로 일손이 달리자 한창 혈기왕성한 머슴 ‘재득’이 길에서 아씨를 맞게 된다. 이 동행으로 인해, 아씨에게 죽은 남편과 가내 질서로부터 주사된 섹슈얼리티-재생산의 병적 결합과 혐오의 연결이 문득 분리된다.

(…) 아씨는 문득문득 재득이의 건강하고 싱싱한 다리를 떠올리며 더운 침을 삼키곤 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다리를 만져보고 싶었다.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을 보고 싶었다. 그런 망상은 분노보다 훨씬 더 뜨겁고도 집요했다.(1, 161)

아씨는 자기에게만은 더럽고 황홀한 쾌락의 불씨가 처음부터 없다고 믿고 있었다. 없는 불씨에 불을 당겨보려고 생전의 허약한 남편이 허구한 날 명을 재촉하는 걸 당하고도 그녀는 지겨워했을 뿐 미안해하지는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수절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1, 188)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 아씨의 마음도 예전처럼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

러나 머릿방으로 돌아오니 방이 핑 돌게 어지러워 벽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주저앉았다. 아씨는 탈옥했다 다시 붙들려온 죄수처럼 잠깐 맛본 고난에 찬 자유를 회상했다. 그동안의 고난은 지긋지긋했지만 결코 후회스럽지는 않았다.(1, 244)

아씨는 단 한 번의 외출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건강한’ 세계와 접촉하고 자발적으로 재득과 동침함으로써 그러한 세계를 끝까지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아씨는 욕망의 주체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를 낮설어하면서도 저지른 행위를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는 아씨의 경험이 재득에 대한 연모의 감정과는 무관한 것임을 암시한다. 예상치 못한 수태로 인해 아씨는 어머니와 올케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출산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는 “태임이 년하고도 정이 읊더니 이 아이도 아무렇지 않네요.”(1, 224)라면서, 기어이 잠적한 재득을 욕하는 어머니에게 역시 ‘재득이 잘못은 아무것도 읊다’(1, 225)며 수습한다. 아씨의 경험은 아씨에게 욕망하거나 욕망하지 않을 권리를 인식하게 했고, 그것은 재득이나 실질의 씨앗을 향한 애정으로 비화하지 않는 대신 아씨가 다시는 ‘동해랑의 비운의 며느리’라는 정체성의 장소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아씨가 해산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폐가를 기어가다시피 하는 장면, 또 해산하고 하룻밤도 안 돼 지느러미가 된 것 같은 다리모양으로 어머니에게 질질 끌려가며 집으로 돌아가는 처절한 장면은 아씨가 일시적인 자기해방의 대가로 치르게 된 부당한 고난의 행군을 보여준다. 이는 ‘개성’이라는 공간적 한계와 연결되어 있다. 피접(避接)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급기야 죽음으로 몰고 간 흥씨부인의 처사는 아씨가 필연적으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익명의 존재였던 아씨가 동해랑에서 ‘가시화’되는 순간 박탈당하고 회수되는 아씨의 ‘자리’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돈궤’를 옮기다 죽음에 내몰리는 아씨와 대조적으로, ‘돈궤’를 통해 아씨와 그 씨앗을 살리고자 했던 전처만은 아씨가 임신한 사실을 진작부터

알아챘음은 물론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르면서 배 속의 것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애정을 느꼈다.(1, 163) 그는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온 제물인 며느리에 대한 죄의식과 태임에 대한 유별난 애정을 바탕으로 아씨를 아꼈지만, 그렇다고 그가 아씨의 실절마저 감싸는 것은 쉽게 해명되지 않는다. 전처만은 “이치에 닿지 않는 자신의 이런 바람을 억지로 이치에 닿게 하려는 나머지 죽은 아들의 혼령이 며느리에게 잉태를 시켰는지도 모른다는 망상”(1, 163)을 품는다.

여기서 전처만의 ‘망상’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으로 들어온 아씨가 가외로 생산한 자본 또한 아씨에 이어 포섭하려는 욕망인 동시에, 혈연의 범주마저 뛰어넘는 새로운 가내 질서의 출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자의 부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문의 계승자로서 비혈연 가족구성원의 성립은 일차적으로 이부(異父) 생산을 포함한 모계질서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전처만이 차마 자각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질서이기에, 그는 “어떡하든 두 모자를 다 살리고도 며느리나 집안의 체면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1, 163)이라는 자기합리화로 자신의 ‘돈궤’에서 은돈을 덜어 친정행을 나서는 며느리에게 전한다. 전처만이 아씨에게 안겨준 자금은 아씨의 해산구완이 아닌 배 속 아기를 양육할 만큼의 값이었다는 점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처만의 분열적 욕망은 아씨의 죽음으로 인해 미완으로 남게 되고, 아씨의 육신이 용수산에 안치됨으로써 전처만의 세계는 본격적으로 균열된다. 용수산이라는 전망대가 전처만의 눈을 통해 개성을 구조화하는 ‘노드’라면, 거기 침투된 아씨는 개성의 주목할 만한 공간적 재편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전처만은 개성땅과 자기 삶을 포개놓던 용수산에서의 지리적 상상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는 아씨가 묻힌 용수산에서 가문의 불행을 비로소 국운과 연결하여 생각하게 된다.

(...) 왜 이리 떳떳지 못하고 초라한 것일까? (...) 어떡하든 씨를 받아보겠다는 맹목적인 욕심과 돈의 위력을 믿는 교만한 마음으로 티끌만 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건강하고 꽃다운 남의 딸자식을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들의 배필로 사오다시피 한 일이 벌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걸 고분고분 승복한 때문이었다. (...) 즉 돈으로 하여금 도리를 잃게 했을 때 저절로 부를 누릴 자격이 없어진다는 걸 전처만 영감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 전처만 영감이 보기에 망조의 암운은 동해랑의 그의 집에만 감도는 게 아니라 송도의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 그가 마지막으로 역성들어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송방의 계율이었다.(1, 263)

그는 돈으로 사오다시피 한 며느리를 중국에는 죽게 한 자신의 행위를, 송상으로서의 원칙을 저버리고 왜놈과 결탁하여 축재하는 상인들의 부정으로 확장하여 시국을 진단한다. 이러한 연결은 전처만이 사돈집으로 향하는 여행길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용수산에서 조망하는 자신의 세계를 뒤로하고 그와 무관한 비혈연적 대상을 찾아가는 이탈의 경험은, 곧 전처만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의한 내물림이자 기존 질서를 거스르는 대안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전처만은 태임의 이부동생인 핏덩이에 ‘태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머릿방 아씨가 동해랑 집으로부터 탈주하여 남긴 실절의 씨앗에 자리를 부여한다. 이 장면을 끝으로 전처만은 다시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태임에게 물려주는 막대한 현금과 태남이라는 짐의 교착은 예의 ‘돈궤’로 수렴되어, 태임 대(代)에 재편되는 가족-자본의 질서가 젠더역학과 부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머릿방 아씨로부터 시작된 탈장소의 경험이 가내의 새로운 젠더레짐²⁵⁾의 출현을 예고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전처만이 태임에게 물려준 ‘돈궤’에는 전처만의 송상으로서의 정체성과, 며느리인 머릿방 아씨의 실절과 죽음이 깃들여 있고, 그 결과물

25) 레짐(regime)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관계의 집합을 일컫는다. 이는 작은 변화와 변동에 대해서는 지속되지만, 특히 경제적 변화 같은 것과 관련된 위기의 시기에는 종종 주기적인 격변에 휩쓸리며, 젠더관계에 대해 사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린다 맥도웰, 앞의 책, 29쪽)

인 태남이라는, 기존의 규범적 가족질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이 들어서 있다. 전처만은 짐짓 태임에게 전근대적 가부장 규범의 상징인 신비로운 ‘돈케’를 물려주었지만, 그가 실제로 계승해준 것, 혹은 태임이 실제로 받은 것은 전환기적 시·공간에서 잠시 가시화되는 다양한 균열의 지점들이 착종된 것이었다. 특히 전처만의 삶이 가장 고밀도로 응축되어 있는 내밀한 공간인 ‘돈케’에, 아씨는 물론 태남, 재득과 같은, 가족의 세계 바깥에 놓인 ‘미망(未亡)’의 존재들이 연결되는 과정은 돈케가 탈신비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태임이 돈케를 공개적으로 파쇄하는 대목은 여러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⁶⁾ 이 행위가 전환점이 된다면, 그것은 이후 전개되는 내용이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민족자본’의 양태를 보여주는 ‘아들딸의 시대’로 급물살을 타게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돈케가 할아버지인 전처만이 태임에게 비밀스러운 것 그대로 남겨준 유산이라는 점, 그리고 이부남매가 그것이 오래전부터 비어있었음을 함께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타고난 ‘망중’ 기질을 억누르기 위해 분투해온 태남이 비로소 자신의 소임을 찾고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케를 열다 태임에게 적발되는데, 누나인 태임은 손수 돈케를 열어 그것을 채우고 있던 숨뭉치를 그에게 확인시킨다. 그리고 전처만이 태남을 위해 예비한 돈으로 삼포를 샀으며, “은탱이는 한 번 돈으로 바꾸면 그만이지만 땅은 해마다 돈을 낳을 테니”(2, 438) 그의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유용할 것을 천명한다. 태임은 물론 태남의 투자적 행위를 짐작하고 땅을 사둔 것은 아니었다. 태남을 집에 들인 이후 그가 ‘관옥’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

26) 우찬제는 이러한 행위가 소설에서 돈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전의 돈이 주로 개인적·가족적 의미로 쓰였다면, 이 대목을 계기로 사회적·민족적 차원의 돈의 가치가 부각된다는 것이다.(우찬제, 『〈미망(迷妄)〉, 〈미망(彌望)〉, 〈미망(未忘)〉, 그 상호텍스트성-박완서의 『미망』 읽기』,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348-349쪽)

서 숙부인 이성이 판 땅을 도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땅이 본디 ‘할아버지의 땅’이었기 때문이다.(1, 208)

이처럼 태임에게 ‘돈케’의 의미가 계속해서 전처만을 위시해 회수되고 있었다면, 돈케를 가운데 두고 그것을 함께 열어젖힌 남매의 행위는 돈케가 파쇄되는 대목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돈케’에 깃든 ‘죽음’과 ‘생존’의 서사를 공유함으로써 남매는 비로소 그러한 균열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깨닫는다. 이 대목에서 태임은 ‘이재(理財)의 의욕과 영감’에 몸서리치고, 태남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뜻을 듣고 ‘자기 몫’을 받아 간도로 돌아간다.(2, 438-446)

안마당에서 언년 아범이 돈케를 꿰고 있었다. 설날 그믐날 떡을 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높이 쳐든 도끼날이 서슬푸르고 케 뚜껍은 이미 몇 가닥의 장작으로 결판이 나 있고, 몸체는 길고 무력하게 아가리를 벌리고 나자빠져 있었다. 그 돈케에 얽힌 소문을 모르면 개성 사람도 아니라 할 만큼 오랜 세월 신비하고 음산하고 요요한 소문 속에 숨었던 돈케가 막상 청천백일하에 드러나니 별것도 아니었다. (...) 태임이가 작살내려는 건 돈케가 아니라 오랜 음산하고 요요한 소문의 시대인지도 몰랐다.(2, 447)

용수산에서 조망되는 개성땅이 청포전, 셋골을 거쳐 동해랑 집으로 조직화되는, ‘전처만’이라는 ‘소문의 시대’는 돈케가 파쇄되는 스펙터클을 통해 비로소 탈신비화된다. 동해랑 집과 개성을 재편하는 동력이 되는 새로운 젠더역학이 계승되는 지점에서, 전처만 대(代)에 존재했던 왕조적 대결의식은 이미 찾아볼 수 없게 된다.

4. 가족과 자본을 엮는 젠더분업과 개성의 탄생

박완서의 유년기를 지배했던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 그리고 이데올

로기의 폭력에 참혹하게 희생된 혈육과 뿌리 뽑혀진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상실감은 그의 작품세계에서 세대를 걸쳐 계승되는 이향(異鄉)의 감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각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급박하게 전개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소설 속 많은 인물들이 정주공간에 대한 이질감과 함께 공간에 안착하고 그것을 재건·확장하려는 의지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변용된다. 이러한 양가성은 그가 주로 천착하는 여성·가족 공간에서 일상성의 정동을 토대로 제시됨으로써 특유의 당대성(modernity)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요소로 일축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공간의 풍속도의 배면에는 역사적·공적 담론과 구분되지 않는 ‘대물림’의 문제가 항시 존재한다. 특히 가족 내부, 또는 세대 간 전승되어 나타나는 전쟁의 트라우마나, 부/빈곤의 양상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동일자로서의 유산이 아닌 인물들이 현재 주어진 공간 질서를 따라 계속해서 추체험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소설 속 인물들이 보이는 분열증적 모습과 양가성은 ‘소시민성’의 지표를 초과하여 끊임없이 반복·축적되는 진행형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박완서의 소설이 당대성을 획득하는 요소가 도출된다 할 수 있다.

박완서의 소설이 공간을 결코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모순들의 적층구조로 제시함으로써 동시대의 폐단을 진단한다면, 역으로 그러한 모순이 출현하는 시점으로 되돌아가 동시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하는 다른 공간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²⁷⁾ 『미망』을 통해 재구성되는 ‘개성’

27) 허정인은 박완서의 소설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부르주아 모더니티’, 즉 ‘돈’의 문제로 언급한다. 박완서가 근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바깥이 아닌 안에서, 그것을 극단으로 심화시켜 소진해버리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글의 필자는 박완서에게서 ‘근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를 다시 시작[再考]하는 모더니스트적 태도를 발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망』의 집필 의도 또한, “통속성, 속물성, 위선성이라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그러한 특성을 전유, 과거와 전통을 적극적으로 현시하며 현재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서사”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허정인, 앞의 글, 316-321쪽) 이는 근대로 열리는 전환기에 출현한 ‘개성’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탈근대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동시에 담겨되어 있었다는 점을 논하는 본 연구와 공명한다.

은 전환기적 시·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균열의 지점들과 거기서부터 출발한 새로운 가족/젠더질서를 기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완서가 궁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간의 건축술에 주목함으로써 근대 극복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미망』의 공간적 배경인 ‘개성’은 일반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가능했던 근대 상업자본주의와 ‘민족자본’이라는 역사적 대응물로 표상된다. 이러한 개성의 로컬리티는 개성 사람들이 상품화폐경제 발전을 통해 얻은 상대적 자율성과 그들이 가진 특유의 반골(反骨) 기질을 근거로, 근대성을 견인하는 공간이자 식민지 독립을 도모하는 ‘민족상인’의 기지로 형상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중현은 개성 지역 담론을 주도했던 매체인 『반도시론(半島時論)』(1917-1924)과 『고려시보(高麗時報)』(1933-1941)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개성이 ‘근대 부르주아의 도시’이자 일본 자본이 침투하지 못한 ‘민족자본의 거점이라는 정치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일본-제국이라는 전체상 속에서 조명한다.²⁸⁾ 여기서 개성의 ‘고려인삼’은 “‘개성-조선-제국-세계’를 접속해주는 기호”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 논자가 “민족경제론적 감각과 연결된 개성 상업자본을 고찰하다보면, 자본은 민족적 경계를 갖지 않는다는 역설적 사태와 조우”²⁹⁾하게 된다고 지적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근대 개성이 ‘민족’이라는 동일자를 거치지 않고 세계체제에 대항하는 로컬 단위의 실험과 적응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동시에 담지하는 로컬리티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로컬리티 연구가 갖는 의미가 “그간 한국문학 연구를 양분해온 개인 혹은 국가(민족) 중심의 서사 사이에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데 있다”면, 그럼으로써 “개인에 집중하는 경우 놓치기 쉬운 공동체적 차원과, 국가(민족) 중심의 관념성에 함몰되는 경우 놓치기 쉬운 구체적 삶의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데 있다면³⁰⁾, 『미망』은 이러한 의미를 여실히 발

28) 정중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東方學志』 제15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29) 위의 글, 302쪽.

꿀할 수 있는 작품이다. 『미망』이 견지하는 개성의 로컬리티는, 자본의 구축과 확대가 사적(私的) 축재를 넘어 지역 상권 보호와 식민지 조선의 독립이라는 상위 스케일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위들 간 피드백을 통해 독자적 시장질서의 균형을 이룩하고 지켜나가려는 체제로 제시된다. 특히 국가(민족)가 세계체제에 대항하는 유일한/유효한 주체의 자리를 점할 수 없게 됐을 때, 로컬이 그 자생적 질서를 토대로 세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국가스케일의 ‘패싱(passing)’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개성이 탈근대의 가능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요인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위 스케일을 부정하고 거기에 대립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미망』에서 신식교육을 마친 종상은 양말공장과 고무공장을 차례로 설립하여 경제도시로서의 개성의 지역성 전환에 개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인’을 해방하여 그들이 생산노동자로서 “제 풀에 살도록” 하게 하는 근대적 자본가로서의 입지를 굳힌다(2, 298). 태임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홍삼 대신 백삼을 통한 이득을 도모하면서 공동광고와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합에 관심을 보이고, “삼포에서 나는 거라면 삼이파리까지도 팔아먹을 궁리”에 몰두할 만큼 자본주의 경제주체로서의 행보를 보인다(3, 78). 이렇게 모인 돈은 태남네가 자리 잡은 간도지방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인출된다. 이처럼 전씨가(家) 사람들의 축재는 ‘민족자본’의 거점으로서의 개성의 로컬리티를 일정정도 재현하고 있으며, 이는 『미망』이 곧바로 역사의 콘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태남으로 하여금 지리적 상상력을 확장하여 자신을 구체성의 세계로 투신할 수 있게 만든 계기로 제시되는 경의선 철도 부설의 국면(2, 319)은 실제 개성의 공간적 변화를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이다.³¹⁾ 마찬가지로 1909년 개성에 설립된 ‘고려삼

30) 정주아, 『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locality): 한반도 서북 지역의 민족주의 문화운동을 사례로』, 『민족문화사연구』 47권,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1, 12-13쪽.

31) 김창원, 앞의 글, 39-42쪽.

업사(高麗蔘業社)'나 전기생산업체인 '개성전기(주)', 또 '공성학', '공진항' 부자(父子)와 같은 개성에 실존했던 삼업자본가 및 지주들의 활동들³²⁾ 또한 『미망』에서 확인된다.

이로써 『미망』의 개성은 문학을 넘어 '민족자본' 형성의 책원지(策源地)라는 사적(史的) 담론장과 조우하는 동시에, 우리 근대화 과정에 노정된 위계적 공간재편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로컬의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대'의 출발점에서 '탈근대'라는 미래기획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성·개성상인이 가진 탈근대·탈식민의 표상은 지속적으로 추념될 수 있다. 그러나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개성은 이러한 표상에 포획되지 않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기존 개성의 표상이 탈젠더화된 주체들이 구축하는 근대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에 해당한다면, 『미망』의 개성은 그 기저에 놓인 또 다른 메커니즘을 담지한다. 선대 전처만으로부터 태임에게 전승된 (탈)근대성은, '가족'과 '자본'을 효과적으로 엮을 수 있는 젠더분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전처만이 기존의 가족/젠더질서에서 이탈한 근대적 생존전략을 예의 '돈궤'를 전승함으로써 암시했다면, 그것을 기조로 태임이 재편하는 문중은 단순히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의 출현을 의미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전처만의 '송상'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긴요하게 작용했던 왕조적 대결의식이 일종의 선악구도로, 타자를 향한 원함과 배타성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었다면 머릿방 아씨의 실절과 태남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규범적 가족질서 바깥의 존재들이 태임에게 위탁되는 순간 그러한 대타의식은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태임이 감각하는 근대성이란 기존 개성·개성상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존재들을 새롭게 자본화하는 한편, 혈연의 연대를 넘어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가족-자본'의 새로운 연결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젠

32)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2007, 309-310쪽.

더 협상과 분업이다. 태임으로부터 다시 그려지는 개성의 로컬리티는 전환기적 시·공간의 체질에 맞게 그 자신을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젠더적 사안을 버팀목 삼게 되는 것이다.

태임은 전처만이 위임한 문중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첫걸음을 종상과의 결합을 통해 달성한다. 종상은 전처만의 양숙인 셋골 ‘이생원’의 손자로, 조선 후기 양반질서의 붕괴를 포함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문이 몰락하자 부성의 사환으로 들어가 개성상인으로서의 도제교육을 받고 있었다. 전처만과 종상의 첫 만남은, 전처만에게는 과거 이조 양반에 대한 원한을 새삼 돌아보게 했고 종상에게는 송상이 가진 지배체제에 대한 대결의식에 갖는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이 사이에 놓인 태임은 종상의 먹살을 잡은 전처만에게 매달려 앙칼지게 대드는 한편(1, 44), 이후 삼포 도굴꾼을 관아에 고발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문당한 뒤 동해랑 행랑채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종상을 수시로 간호하여 또다시 전처만과 대립한다(1, 122). 『미망』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대라 할 수 있는 태임·종상의 결합이, 전근대적 인물이자 가족사의 구도 속에서 선대에 해당하는 전처만의 사후(死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들어맞는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동세대 인물들로 보이는 태임과 종상이 실은 서로 다른 세대적 층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생원의 막내아들이자 종상의 부(父)인 ‘이문수’는 전처만 모의 ‘젓’을 노략한 장본인이다. 이생원네가 쇠동이 문수를 낳고 젓이 돌지 않자 마침 출산한 ‘처만네’의 젓을 그네들의 1년 치 양식과 맞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정작 젓의 본래 주인인 전처만의 동생은 마마로 죽고 만다(1, 53). 전처만과 한 젓을 먹은 문수의 후손인 종상은 전처만이 능멸하는 이조 양반의 후예이기에 앞서 보다 꺼림칙한 혼종(混種)이자 무정체의 존재이다. 실상이성이나 부성과 동일한 세대적 층위에 있는 종상은 전처만과 태임 대(代) 사이에 놓여 갈 곳을 잃은 봉건 지배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태임이 이러한 계기적 인물을 가문에 포섭하는 방식은 젠더적 협상과 분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독이 오른 다리를 고치기 위해 한양에 머물던 종상은, 송도와는 다른 활기와 시대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한양 공기’를 맞보면서 “평등과 자유의 예감”에 몸서리친다(1, 288). 이러한 ‘중심’에서의 변화를 체득하는 경험은 개성의 동무들과 함께 세운 민란의 계획을 점차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그는 곳곳에 번지는 번다한 소요(騷擾)들이 사사로운 원한에서 비롯돼 있다는 점과, 그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다(1, 300). 개성에 돌아온 종상은 급기야 동무들이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개성 상인을 분노의 대상으로 특정화하자, 태임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배신하고 동해랑 집에 연통하러 간다. 이 때 종상은 민란의 주모자를 자처했다가 도리어 배신자가 된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나는 저들보다 생각이 깊고 그래서 저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저들이 부러워. 내가 너무 못나 보여. 생전 얼굴을 못 들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줄은 정말 몰랐어.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아.”(1, 353)

태임에게 돌연 반말을 할 정도로 종상은 “나는 왜 여기 와 있나”(1, 352)라는 존재론적 문제와 긴박하게 대면한다. 이 대목에서 태임은 종상에게 전처만이 계승한 두 가지 유산을 공개한다.

“나에게 동생이 하나 생겼다네.” (…)

“그 아이는 내 거라네.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내게 주고 가신걸.”(…)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아이한테 지고 말았지만 난 그 아이를 이길 걸세. 관옥 같은 그 아이를 현현장부로 키울 걸세.”

“시집은 안 가시고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가도 그만이네.”(…)

“자네 혹시 한양가서 신식 공부할 생각 없나?”(…)

“신식 공부는 내가 꼭 허구 싶은 거였는데 대신 자네한테 시키고 싶어졌네.”(…)

“이재(理財)도 신식공부 못지않게 험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자네 공부시키는 것도 이재가 아니겠나?”(1, 347-354)

이 장면은 일종의 협상적 구혼의 형식을 보여준다. 태임이 종상이라는 타자를 가문에 들여오는 방식은 가부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태남’이라는 선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게 자신의 자산을 공급하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세대적으로는 구습에, 시대적으로는 근대 목하에 있는 종상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것인 동시에, 그가 태임의 가문을 지키고 확장하는 동력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그를 학력자본화 하는 것을 뜻한다.

종상이 얻게 되는 학력과 태임의 실물경제에 대한 수완은 가족-자본의 젠더적 분업의 형식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나라 안팎을 오가며 축적한 경제의 감각과, “5리의 이문을 위해 10리 쫓기를 마다않는”(1, 15) 송상의 위엄이 ‘개성’의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단일한 원리였다면 그 안에 흥씨부인과 같은 가내 여성의 공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태임이 선대 여성들과 달리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그가 독자적으로 부릴 수 있었던 자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으로 하여금 근대적 가족 이데올로기³³⁾로

33) 가부장제를 지속시키는 기제인 성별분업체제의 유래는 20세기 초 노동력 재생산과 경제 성장이 자본주의 체제로 통합되면서 ‘근대 가족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에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던 집-일터가 ‘노동’의 세계와 대척점에 놓임으로써 중산층 주부는 ‘소비단위’인 가정의 관리자로 윤택되고, 이로부터 여성의 재생산 돌봄노동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자리하게 된다.(마리아 로사 달라코스타, 김현자·이영주 역, 『집안의 노동자』, 갈무리, 2017, 45쪽) 근대 가족 이데올로기는 공적/사적 공간의 젠더이분

이행하는 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젠더 협상과 분업을 기조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확장해나갔다는 점에 있다.

종상의 학력자본은 화폐개혁 직후 개성에 들이닥친 혼란에서 가문을 지키는 힘이 되었고, 상업에서 공업으로 나아가는 자본 확장의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일본 자본의 침투를 막고 개성의 상권을 지키기 위한 은행 제도나 조합의 형식을 고민하는 데 활용되었다. 반면 태임은 삼포를 관리하는 직접노동에서 손을 떼지 않음으로써 가족-자본의 분업체제를 유지해나갔다. 이러한 협상과 분업의 의미는 또한, 종상의 핏속에 흐르는, 기존 지배질서의 원리로 선대로부터 탈환된 ‘젯’을 후대인 태임이 근대적 자본과 교환하여 회수함으로써 이상적인 결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이행의 모델은 개성의 로컬리티의 기저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적 사안을 보여준다. 그러나 종상의 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발기문(發起文)’ 쓰기에 대한 고민은, 이른바 ‘민족자본’이라는 식민지 근대의 대안적 패러다임이 남성이라는 보편주체의, 탈젠더화된 개성을 탄생시키는 동력이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개성의 로컬리티를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데 있다. 그간 『미망』은 역사·가족사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질로 인해 박완서 소설 연구의 자장에서 자주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품은 박완서가 집·가정에서 벌어지는 여성·가족 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던

법을 고착시키고 임금노동과 결부된 젠더질서를 공고화해 자본주의 체제에 놓인 모든 현장을 지속적으로 구획하고 분리시키는 원리가 되었다. 『미망』에서 태임으로부터 구축된 가족-자본은 협상과 분업을 토대로 한 남녀의 결합과 젠더역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근대 직후에 담지되는 탈근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대성 비판이라는 테마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구한말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전환기적 시·공간을 전면화함으로써 그러한 주제의식을 더욱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미망』에서 ‘개성’은 경제 영역에서 가장 잘 포착되는 근대성에 대한 화두가 ‘가족’의 생활세계에 수렴되어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우리 문학이나 역사에서 개성의 로컬리티는 근대 상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족자본’의 거점이라는 경제·정치사적 대항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은 『미망』에도 충실히 재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성의 로컬리티가 구축되는 기저에 젠더 이슈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젠더지리학은 공간을 구축하는 경계와 역동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다양한 층위의 스케일에서의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관계적이고 유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바라보는 비판적 공간이론이다. 이는 특히 공/사(public/private)의 이분법적 공간 혹은 집/지역/국가/글로벌 스케일 등으로 구획된 물리적 경계를 뛰어넘고 교섭하고 탈주하고 교란하는 (여성) 주체의 행위자성(agency)을 포착하고 복원한다는 점에서, 젠더질서의 변용이 갖고 오는 새로운 공간 구획에 주목하는 본 연구와 상통한다. 『미망』에서 가족사·연대기라는 형식적 특질이 갖는 의미는 세대 간 계승되는 가족/젠더질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유산(heritage)’의 이행 과정에 인물들의 스케일 교란과 경계넘기가 긴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사대(四代)에 걸친 연대기를 그리는 『미망』의 서사에서 선대(先代)에 해당하는 ‘전처만’은 왕조적 대결의식을 토대로 구축된 ‘송상’의 정체성을 지닌 전환기적 인물이다. 그는 전근대적 인물이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위치성’을 생존전략 삼아 그것을 내면화한 존재로서 근대성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감각하는 인물이다. 그는 서구적 친밀성과 근대적 섹슈얼리티의 세계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담지하고, 봉건 체제에 대한 균열의 상징성을 지닌 ‘돈퀘’를 후대인 ‘태임’에게 계승한다.

‘태임’이 ‘전처만’으로부터 물려받은 ‘돈궤’는 그의 모(母)인 ‘머릿방 아씨’의 실절(失節)과 죽음, 그리고 그 씨앗인 ‘태남’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아씨’는 ‘전처만’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온 제물로, 그는 동해랑 집에서 재생산을 위한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던 중 ‘집’이라는 정체성의 장소를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욕망에 눈뜬다. 이러한 ‘탈장소’의 경험을 통해 다시는 ‘동해랑의 비운의 며느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아씨’는 죽음을 택하고, ‘전처만’은 ‘태임’에게 돈궤와 함께 그의 이부(異父) 동생 ‘태남’을 위탁한다. ‘돈궤’의 상징성은 기존의 규범적 가족질서에 들어갈 수 없는 젠더적 사안을 의미한다. ‘태임’은 전환기적 시·공간에서 잠시 가시화되는 다양한 균열의 지점들이 착종된, 그러나 근대적 생존전략인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태임’은 기존 개성·개성상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존재들을 새롭게 자본화하는 한편, 혈연의 연대를 넘어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가문을 재편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족-자본’의 새로운 연결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젠더 협상과 분업으로, 태임으로부터 다시 그려지는 개성의 로컬리티는 전환기적 시·공간의 체질에 맞게 그 자신을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젠더역학을 버팀목 삼게 된다.

결론적으로 『미망』의 개성은 가족 스케일의 질서가 변용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근대성을 견인하는 동시에 ‘민족자본’ 형성의 기지(基地)로서 개성의 로컬리티는, ‘근대’의 출발점에서 ‘탈근대’를 향한 미래기획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망』을 통해 그간 개성이라는 장소 정체성을 논할 때 아직 문제시된 바 없는 가족/젠더질서의 의미를 기입함으로써, 오늘날 개성이 지닌 탈근대공간으로서의 다른 가능성을 환기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는 개성의 로컬리티 형성에 개입하는 가족/젠더질서의 세대적 계승 양상을 초점화하기 위해, ‘태임’의 후대(後代)가 엮어가는 서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망』에서 ‘혜정’은 가문의 재편과 수호라는 ‘태임’의 소임을 완성하는 인물로, ‘태임’의 계승자가 ‘여란’이 아닌 ‘혜정’이라는

점은 ‘태임’들이 구축했던 ‘가족-자본’의 체제가 그 출발점과 달리 혈연가족을 넘어서는 지점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태임’이 혈연의 연대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공동체를 구성할 때 그 중심에 놓이게 되는 ‘해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의 연구를 통해 이어나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박완서, 『미망』, 박완서소설전집결정판 15·16·17, 세계사, 2012.

2. 단행본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2007, 309-310쪽.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77-81쪽.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42-46쪽.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0, 22-23쪽.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역,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망티시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번역총서 4, 심산출판사, 2011, 20-21쪽.

마리아 로사 달라코스타, 김현지·이영주 역, 『집안의 노동자』, 갈무리, 2017, 45쪽.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9, 62-65쪽.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2011, 267쪽.

3. 논문

- 권명아,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 찾기」, 『역사비평』 45권, 역사문제연구소, 1998.11, 389-410쪽.
- 김창원, 「근대 開城의 지리적 배치와 開城商人의 탄생」, 『국제어문』 64권, 국제어문학회, 2015.3, 33-53쪽.
-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저,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7, 474-496쪽.
- 문재원,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로컬리티 인문학』 제15호,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4, 305-314쪽.
- 우찬제, 「〈미망(迷妄)〉, 〈미망(彌望)〉, 〈미망(未忘)〉, 그 상호텍스트성-박완서의 『미망』 읽기」,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348-349쪽.
- 이재성, 「근대와 탈근대 담론에서 존재론적 ‘사이’로서의 로컬리티」, 『哲學研究』 제126집, 대한철학회, 2013, 235-261쪽.
- 정중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東方學志』 제15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279-329쪽.
- 정주아, 「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locality): 한반도 서북 지역의 민족주의 문화운동을 사례로」, 『민족문학사연구』 47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8-31쪽.
- 정현주,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5, 289-303쪽.
-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근대 재고의 한 형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315-334쪽.
- 홍기돈, 「미망, 2010년대에 부각되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의미」, 『미망』 작품해설, 세계사, 2012.

Abstract

The Architecture of (post) modern space in Park Wan-seo's “Mi-mang(未忘)”

: The birth of Gae-sung(開城)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geography

Kwon, Young-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lity of modern 開城 in Park Wan-seo's “未忘”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der geography and to identify newly the world of her works. Since then, “未忘” has been regarded as exceptional in the field of research of Park Wan-seo's novel due to the genre characteristic, history & family history novel. However, this work is also connected with the theme of criticism of modernity that Park Wan-seo has presented taking home and family as background. In particular, this work emphasizes the consciousness of such themes by presenting on the front of transitional time and space, namely, the end of the dynasty and the colonial Joseon(朝鮮).

In our literature and history, the locality of 開城 represents the development of modern commercial capitalism and the economical & political-historical opposition character as the base of ‘national capital’. This point is faithfully reproduced in “未忘”. However,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at gender issues are involved in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locality of 開城.

The meaning of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未忘” as ‘family history & chronology’ is that it effectively exposes the family/gender order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heritage’, the scale disturbance and border crossing of the characters act as a critical moment.

Although ‘Jeon, Cheo-Man’ is a pre-modern person, he have been using his location as a survival strategy for a long time and have internalized it, and he quickly senses the core of modernity. It is a new gender order that is the foundation of western intimacy and modern sexuality. ‘Jeon, Cheo-Man’ carries on with it and succeeds it to the latter, ‘Tae-Im’.

The money box that ‘Tae-Im’ inherited from ‘Jeon, Cheo-Man’ condensed devirgination and death of ‘a small back room lady’(the mother of Ta-Im), and its seed ‘Tae-Nam’. ‘Jeon, Cheo-Man’ entrusts ‘Tae-Nam’, his uterine brother to ‘Tae-Im’ along with the money box. The money box symbolizes a gendered issue that cannot fit into the existing normative family order. ‘Tae-Im’ inherited it as a means of modern survival strategies.

‘Tae-Im’ re-capitalizes the being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ies of existing 開城 and 開城 merchants. And she tries to reorganize the family by aiming for a community that changes the structure of the family beyond the age of kin. Gender negotiations and division of labor are important drivers for this new connection of family-capital. The locality of Gaesung, which is drawn from ‘Tae-Im’ again, is based on gender issue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tself according to transitional time and space.

In conclusion, the 開城 of “未忘” is a space that works closely wit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order of the family scale. This study described the meaning of family/gender order that was not revealed when discussing place identity of 開城, and through this, we tried to call out another possibility as a postmodern space of

today's 開城.

Key words : gender, feminism, geography, Gaesung, Gaesung merchants, family history, locality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